

교양체육만족도가 전공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대학생활만족도의 매개효과를 포함하여

박재암
대구대학교 스포츠레저학과

The Effect of Satisfaction with General Physical Education on Major Satisfaction: Including the Mediating Effect of College Life Satisfaction

Jae-Ahm Park
Division of Sports and Leisure Studies, Daegu University

요약 본 연구는 교양체육만족도, 전공만족도, 대학생활만족도의 관계를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연구의 대상자는 경산시에 위치한 D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 중 2023학년도 1학기 및 2학기에 개설된 교양체육 수업을 최소한 과목 이상 수강한 학생 총 324명으로 선정하였다. 변인간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하여 확인적 요인분석과 구조방정식 모형(structural equation modeling) 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교양체육만족(심리적)은 대학생활만족에 정(+)의 영향을 미친다. 둘째, 교양체육만족(신체적)은 대학생활만족에 정(+)의 영향을 미친다. 셋째, 대학생활만족은 전공만족에 정(+)의 영향을 미친다. 넷째, 교양체육만족(심리적)은 전공만족에 통계적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다섯째, 교양체육만족(신체적)은 전공만족에 통계적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여섯째, 교양체육만족(심리적)은 대학생활만족을 매개로 하여 전공만족에 간접영향(+)을 미친다. 일곱째, 교양체육만족(신체적)은 대학생활만족을 매개로 하여 전공만족에 간접영향(+)을 미친다. 본 연구의 결과는 대학의 가장 큰 두 가지 교육의 축인 교양교육과 전공교육이 각각의 분류된 교육과정이지 아닌 상호보완적이며 상생의 관계에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교양교육과 전공교육을 연결시키는 중요한 고리가 바로 대학생활만족도라는 것이 밝혀졌다.

Abstract This study examined the relationships between satisfaction with general physical education, major satisfaction, and college life satisfaction. The participants of this study were 324 students at D University in Gyeongsan who had taken at least one general physical education course during the first and second semesters of the 2023 academic year. The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and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satisfaction with general physical education (psychological) positively influences (+) college life satisfaction. Second, satisfaction with general physical education (physical) positively influences (+) college life satisfaction. Third, college life satisfaction positively affects (+) major satisfaction. Fourth, satisfaction with general physical education (psychological) does not affect major satisfaction. Fifth, satisfaction with general physical education (physical) does not affect major satisfaction. Sixth, satisfaction with general physical education (psychological) indirectly affects (+) major satisfaction mediated by college life satisfaction. Seventh, satisfaction with general physical education (physical) indirectly affects (+) major satisfaction mediated by college life satisfaction. These results suggest that the two major educational pillars of the college, general and major education, are not separate educational paths but are mutually complementary and coexistent. Furthermore, college life satisfaction is the link connecting general and major education.

Keywords : Satisfaction, General Physical Education, Major, College Life, Mediation

*Corresponding Author : Jae-Ahm Park(Daegu Univ.)

email: japark@daegu.ac.kr

Received January 29, 2024

Accepted March 8, 2024

Revised February 27, 2024

Published March 31, 2024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대학의 교양교과목은 전공에 국한되지 않고 모든 재학생들이 수강할 수 있는 과정으로, 인간과 사회에 대한 통찰력을 기르고 다양한 분야에 대한 지적 경험을 제공한다[1]. 또한 졸업 후 성숙한 사회 구성원으로서 활동하기 위한 지성, 판단력, 올바른 가치관을 함양할 수 있게 한다[1]. 1989년 공포된 대통령령 12635호에 근거하여 교양 교육은 대학의 필수 교과목에서 선택 교과목으로 전환되었으며, 이로 인해 각 대학의 상황과 재량에 맞게 변화·발전해 왔다[2,3].

특히 체육을 통한 교양교육의 중요성은 지속적으로 강조되어 왔다[4-6]. 체육은 대근육을 사용하는 활발한 신체의 움직임을 통하여 건강을 증진시키고, 심신을 고르게 발전시키는 전인교육을 목표로 한다[7]. 교양체육 교과목의 심리적·신체적·사회적 이점에 대해서는 다양한 선행연구[6,8]를 통하여 이미 밝혀진바 있다. 교양체육은 스트레스 해소, 인내력 및 자기효능감 증진과 같은 심리적 이점이 있으며[6,8] 체력향상, 건강 유지, 아름다운 체형의 형성과 같은 신체적 이점도 있다[8]. 뿐만 아니라 교양체육은 사회성을 증진시켜 사회로의 진출을 앞당기고 있는 학생들에게 졸업 후 성공적으로 사회생활에 임할 수 있도록 돕고, 평생체육 참여를 위한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한다[5,8]. 대학별 실정에 맞도록 편성된 교양체육은 각 대학의 스포츠 문화를 대변하고 교내 여가스포츠 및 동아리 활동의 참여를 장려하는 역할을 한다[5].

한편 선행연구[4,9]에 의하면 교양체육만족도는 대학생활만족도와 유의한 정(+)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생활만족도란 자신이 재학 중인 대학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 애착, 유대의 정도라고 볼 수 있으며[4] 교수, 교육 시설, 학생 서비스, 복지 시설, 취업 지도, 학생회 활동, 교육 과정 등 다양한 하위 요인을 포함한다[4,10]. 대학생활만족도는 재학생들이 학교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 및 신뢰를 형성하도록 하며, 교수 및 교우와의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도록 돕는다[11]. 특히 대학생활만족도는 전공만족도 또한 높이는 중요한 요인으로 알려져 있다[12-14].

대학에서의 전공 선택은 진로 결정에 있어 중요한 요소로 여겨지며, 전공에 대한 체계적인 학습은 전문적인 소양을 쌓고 직업적 잠재력을 개발하는 기초가 된다[15-18]. 전공만족도란 학생이 자신의 전공과 관련된 활동, 교육 및 경험에 대해 느끼는 전반적이고 주관적인 만

족감을 의미한다[15-18]. 이러한 관점에서 전공만족도는 전공 수업, 수업 외의 학과 활동, 교수 및 선·후배, 친구들과의 관계 등을 포함하는 다양한 하위 요인들로 구성될 수 있다[15-18]. 학생들이 느끼는 전공만족도가 높을수록 적극적인 학습 태도를 보이고 전공에 대한 몰입도가 높아진다[15-18]. 또한 전공만족도는 학생들이 학교 및 학과 생활에 잘 적응하도록 돕고, 진로에 대한 고민이나 갈등을 감소시켜 학업을 중단하고자 하는 의도를 낮춘다[18]. 이는 진로에 대한 확신을 바탕으로 자기 관리와 계획을 더욱 적극적으로 하며, 진로 및 취업 시 필요한 조건과 역량을 갖추기 위해 노력하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18].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교양체육만족도, 대학생활만족도, 전공만족도 간에는 밀접한 상호 연관성이 있다. 그간 교양수업만족이 대학생활만족도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에 대한 연구[9,20,21], 대학생활만족도가 전공만족도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에 대한 연구[12-14], 교양수업만족이 전공만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21,22]는 각각 있어왔다. 그러나 이들 요인간의 관계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충분하지 않다고 사료된다. 특히 교양교과목 중 체육과 관련된 교과목에 대한 연구가 다소 부족하며, 교양체육만족도가 전공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대학생활만족도가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명확히 규명되지 않았다. 이러한 분석들이 이루어진다면, 교양수업과 관련된 대학교육의 정책 및 커리큘럼 개발에 있어서 효과적인 자료로 활용될 것이다.

1.2 연구가설 설정

이 연구는 교양체육만족도, 대학생활만족도, 전공만족도 간의 관계에 대하여 더욱 면밀한 분석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선행연구에 근거한 가설을 설정하였다. 첫째, Park[9], Lim[19], Ahn, Cho[20] 등의 선행연구에 따르면 교양수업만족도는 대학생활만족에 정(+)의 영향을 미친다. 둘째, 선행연구들[12-14]의 결과에 따르면 대학생활만족도는 전공만족도에 정(+)의 영향을 미친다. 셋째, Park[21], Park, Woo[22]의 연구에 따르면 교양수업만족도는 전공만족도에 정(+)의 영향을 미친다. 마지막으로 앞서 살펴본 선행연구를 종합하면, 교양수업만족도는 대학생활만족도와 전공만족도에 각각 정(+)의 영향을 미치며, 대학생활만족도는 전공만족도에 정(+)의 영향을 미친다. 즉, Baron, Kenny[23]의 매개효과 성립 요건에 따르면, 대학생활만족은 교양수업만족도와 전공만족도간의 관계에서 매개효과를 가진다고 볼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한 본 연구의 가설 및 연구 모형은 다음과 같다(Fig. 1).

- 가설1: 교양체육만족도(심리적)은 대학생활만족도에 정(+)^{0.66}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 가설2: 교양체육만족도(신체적)은 대학생활만족도에 정(+)^{0.19}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 가설3: 대학생활만족도는 전공만족도에 정(+)^{0.12}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 가설4: 교양체육만족도(심리적)은 전공만족도에 정(+)^{0.38}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 가설5: 교양체육만족도(신체적)은 전공만족도에 정(+)^{0.12}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 가설6: 교양체육만족도(심리적)은 대학생활만족도를 매개로 하여 전공만족도에 간접영향을 미칠 것이다.
- 가설7: 교양체육만족도(신체적)은 대학생활만족도를 매개로 하여 전공만족도에 간접영향을 미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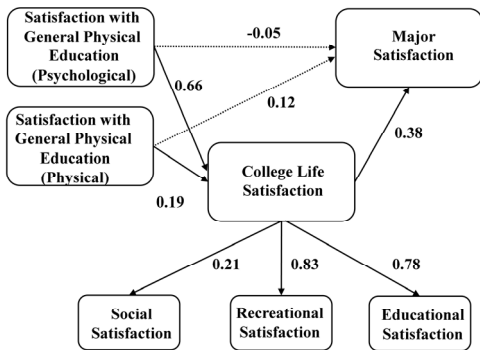


Fig. 1. Research Model
 Solid lines indicate statistically significant paths. Dotted lines indicate insignificant paths. Values shown next to the lines are standardized regression coefficient.

2. 연구방법

2.1 연구대상

경산시에 위치한 D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 중 2023학년도 1학기 및 2학기에 개설된 교양체육 수업을 최소 한 과목 이상 수강한 학생을 모집단으로 선정하여 비확률 표본추출법 중 편의표본추출법을 이용하여 총 400명을 표집 하였다. 설문을 실시하기에 앞서 연구의 목적과 자료 수집 및 분석과정 등을 충분히 설명하였으며, 설문 참

여자의 자발적인 참여의사를 명확히 확인 후 설문을 실시하였다. 설문은 무기명으로 진행되었으며, 최종 회수된 설문지는 총 366부로 응답률 91.5%이다. 이들 중 질문문항의 일괄처리, 오기입, 무응답 등을 포함하여 신뢰성이 떨어지는 42부를 제외하고 324부를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다. 연구대상자 총 324명 중 남학생은 84.3%, 여학생은 15.7%로 나타났다. 학년에 있어서는 4학년이 가장 큰 비중(34.3%)을 차지하고 있으며 1학년(29.60%), 3학년(22.2%), 2학년(13.9%)이 뒤를 잇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Table 1. Demographic information (N=324)

Variable	Item	N	%
Gender	Male	273	84.3
	Female	51	15.7
Type of Sport	Bowling	153	47.2
	Team sports	105	32.4
Major	Tennis	66	20.4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	63	19.4
	Natural science	132	40.7
	Fine arts	30	9.3
School Grade	Sport and Physical education	99	30.6
	Freshman	96	29.6
	Sophomore	45	13.9
	Junior	72	22.2
	Senior	111	34.3

2.2 연구도구

본 연구는 선행연구에서 사용된 척도를 바탕으로 설문지를 구성하였다. 먼저 교양체육만족도(satisfaction with general physical education)는 Hur[24]와 Park[9]의 연구에서 사용된 척도를 본 연구에 맞도록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다. 교양체육만족도는 심리적(psychological)과 신체적(physical)의 하위요인을 포함하고 있으며, 요인별 각 3문항씩 총 6문항으로 구성하였다. 교양체육에 대한 심리적 만족은 “교양체육을 통한 스포츠 참여는 나로 하여금 자부심을 갖게 해준다”, “교양체육을 통한 스포츠 참여는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을 준다”와 같은 문항들로 구성되었다. 신체적 만족의 경우 “교양체육 수업을 통하여 체력을 증진시킬 수 있다”, “교양체육 수업을 통하여 다양한 운동능력과 기술을 발전시킬 수 있다”와 같은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각 문항들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의 5점 척도로 구성되었다. 점수가 높을수록 교양체육만족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대학생활만족도(college life satisfaction)는 Kang[25]의 연구에서 사용된 척도를 본 연구에 맞도록 수정·보안하여 사용하였다. 대학생활만족도는 사교적(social), 교육적(educational), 휴식적(restful)의 3개의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었다. 각 요인별 3문항, 총 9문항으로 구성하였다. “대학생활을 통하여 좋은 친구들을 사귄 수 있다”와 같은 사교적만족, “대학생활을 통하여 습득한 전공 및 교양지식은 가치가 있다”와 같은 교육적만족, “학교 내에서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이 있다”와 같은 휴식적만족을 측정하는 문항들로 구성되었다. 각 문항들은 “전혀 아니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의 5점 척도로 구성되었다. 점수가 높을수록 대학생활만족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전공만족도(major satisfaction)는 서유정[26]의 연구에서 사용된 척도를 이 연구에 맞도록 수정·보안하여 사용하였다. 단일요인의 3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문항은 “현재 전공에 대하여 배우고 싶은 것이 많다”, “현재 전공이 재미있고 흥미롭다”와 같은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각 문항들은 “전혀 아니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의 5점 척도로 구성되었다. 점수가 높을수록 전공만족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2.3 자료분석

통계분석 프로그램인 SPSS 20.0을 이용하여 기술통계량 분석과 신뢰도분석을 실시하였다. 구조방정식모형

분석에 있어서는 Anderson, Gerbing[27]이 제안한 2단계 분석법을 실시하였다. 먼저 AMOS 20.0 통계분석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확인적 요인분석(confirmatory factor analysis)을 실시하였으며, 이후 구조방정식모형(structural equation modeling)을 분석하였다. 모형 적합도 판별 기준은 카이제곱/자유도(χ^2/df) 5.0 미만, CFI 0.90 이상, RMSEA 0.10 미만, SRMR 0.08 미만이다[28,29]. 측정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0.70 이상을 기준으로 하였다[30]. 집중타당도는 개념신뢰도(CR) 0.70 이상, 평균분산추출값(AVE) 0.50 이상을 판별 기준으로 하였다. 판별타당도는 평균분산추출값(AVE)이 모든 상관계수의 제곱 값보다 클 경우 판별타당성을 확보한 것으로 판별하였다[29].

3. 결과

3.1 확인적요인분석

측정모형의 적합도를 분석한 결과 [$\chi^2=385.61, \chi^2/df=3.21, p<0.001$]이며 CFI=0.92, SRMR=0.04, RMSEA=0.08으로 나타났다. 즉, 모형을 채택하기 위한 일반적인 적합도 지수의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28,29]. 신뢰도에 있어서는 모든 요인이 Cronbach’s Alpha 0.70 이상의 적합한 신뢰도를 나타냈다[30]. 집중타당도에 있어서는 모든 요인이 개념신뢰도(CR) 0.70

Table 2. Summary of the factors mean, factor loadings, Cronbach’s alpha, CR, AVE, and squared correlations.

Variable		M	Factor Loading	α	CR	AVE	Square of the correlation
Satisfaction with general physical education	Psychological	Item1	4.29	0.77	0.83	0.83	0.63
		Item2	4.03	0.81			
		Item3	4.16	0.81			
	Physical	Item1	3.93	0.76	0.83	0.83	0.62
		Item2	3.74	0.76			
		Item3	3.97	0.85			
College life satisfaction	Social	Item1	3.56	0.75	0.81	0.81	0.58
		Item2	3.54	0.77			
		Item3	3.59	0.78			
	Recreational	Item1	3.69	0.80	0.90	0.90	0.75
		Item2	3.69	0.91			
		Item3	3.68	0.89			
	Educational	Item1	3.83	0.77	0.84	0.84	0.64
		Item2	3.69	0.87			
		Item3	3.53	0.76			
Major satisfaction		Item1	3.83	0.92	0.91	0.90	0.76
		Item2	3.69	0.85			
		Item3	3.78	0.85			

Table 3. Outcomes from the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nalysis

Direct effect			
Path	β		
H1: General physical education satisfaction (psychological) → college life satisfaction	0.66***		
H2: General physical education satisfaction (physical) → college life satisfaction	0.19**		
H3: College life satisfaction → major satisfaction	0.38**		
H4: General physical education satisfaction (psychological) → major satisfaction	-0.05		
H5: General physical education satisfaction (physical) → major satisfaction	0.12		
Indirect effect			
Path	β	95% CI	
		lower limit	upper limit
H6: General physical education satisfaction (psychological) → college life satisfaction → major satisfaction	0.25**	0.07	0.50
H7: General physical education satisfaction (physical) → college life satisfaction → major satisfaction	0.07**	0.02	0.16

= $p < .01$, *= $p < .001$, β = standardized regression weight

이상, 평균분산추출값(AVE)는 0.50 이상을 나타내어 적합한 판별 기준을 충족하였다[30]. 판별타당도에 있어서는 평균분산추출값(AVE)가 모든 상관계수의 제곱 값보다 큰 것으로 나타나 판별타당성을 확보하였다[29](Table 2).

3.2 구조방정식모형

구조방정식모형을 분석한 결과 [$\chi^2=395.25$, $\chi^2/df=3.13$, $p < 0.001$]이며 CFI=0.92, SRMR=0.04, RMSEA=0.08으로 나타났다[28,29]. 즉, 모형적합도는 수용 가능한 수준으로 평가할 수 있다. 세부적으로 요인 간의 관계를 살펴보면, 교양체육만족도(심리적)은 대학생활만족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0.66$, $p < 0.001$). 교양체육만족도(신체적)은 대학생활만족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0.19$, $p < 0.01$). 대학생활만족도는 전공만족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0.38$, $p < 0.01$). 교양체육만족도(심리적)은 전공만족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0.05$, $p > 0.05$). 교양체육만족도(신체적)은 전공만족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0.12$, $p > 0.05$). 교양체육만족도(심리적)은 대학생활만족도를 매개로 하여 전공만족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의 간접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0.25$, $p < 0.01$). 교양체육만족도(신체적)은 대학생활만족도를 매개로 하여 전공만족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의 간접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0.07$, $p < 0.01$)(Table 3).

4. 논의

교양체육만족도, 대학생활만족도, 전공만족도간의 관계를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논의를 도출하였다. 먼저 교양체육만족도(심리적)은 대학생활만족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가정한 가설1 및 교양체육만족도(신체적)은 대학생활만족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가정한 가설2는 채택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선행연구[9,19,20]를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Lim[19]는 189명의 여대생을 분석한 결과 교양체육수업 참여 전보다 참여 후의 대학생활만족도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더 높은 것을 밝혀냈다. Lim[19]는 교양체육수업 참여가 신체적 자기개념을 향상시키고 이로 인하여 심리적 행복감과 같은 다양한 심리요인에 긍정적 변화를 일으켰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이러한 심리적 변화가 궁극적으로 대학생활만족도를 향상시키는 것으로 보았다[19]. Ahn, Cho[20]는 서울, 경기, 인천, 충청, 강원도에 위치한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 총 329명을 분석한 결과, 교양체육에서의 몰입경험이 대학생활만족도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밝혀냈다. Ahn, Cho[20]는 스포츠와 같은 신체적인 활동은 몰입을 경험하기 유리하며, 이러한 몰입경험이 대학유대감과 대학생 불안정감 등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대학생활만족도가 높아졌다고 해석하였다. Park[9]은 185명의 대학생을 분석하여 교양체육수업의 만족도가 대학생활만족도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밝혀냈다. 이 연구[9]에서는 교양체육수업이 대학생활만족도를 매개로 하여

재학생 충원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인 학업지속 의도 또한 간접적으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Park[9]의 연구에서 교양체육수업의 만족도가 학업지속의도에 직접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즉 교양체육만족도는 대학생활만족도를 매개로 하였을 때 더욱 다양한 심리적 요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다음으로 대학생활만족도는 전공만족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가정한 가설3은 채택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선행연구[12-14]를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Kim, Jee, Lee[12]의 연구에 따르면 학생이 경험하고 느낀 주관적 교육서비스와 학교생활에 대한 만족감이 높을수록 전공에 대한 몰입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12]에서는 서울소재 1개 대학교와 지방소재 2개 대학교에 재학 중인 대학생 총 233명을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Kim, Jee, Lee[12]는 대학에 대한 만족도를 교육프로그램, 교육서비스 등과 같은 심리적 만족과 등록금 수준, 복지혜택, 장학금 수혜 등과 같은 비용적 만족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그 결과 대학에 대한 심리적 만족은 전공몰입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쳤으나, 비용적 만족은 전공몰입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즉 학생들에게 있어서 장학금 및 등록금 수준과 같이 수치상으로 직관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부분에 대한 만족도 보다는 교육서비스 및 프로그램에 대한 전반적인 심리적 만족이 전공몰입에 있어서는 더욱 중요한 요인으로 볼 수 있다. Park, Han[13]의 연구에 따르면 전공만족도에 가장 큰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대학생활적응으로 나타났으며, 뒤를 이어 학습동기 및 진로준비행동 등의 요인이 영향을 미쳤다. Park, Han[13]의 연구는 언어치료 전공 학생들만을 대상으로 한 연구였으나, Cho[14]의 보건계열 전공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대학생활적응은 전공만족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교양체육만족도(심리적)은 전공만족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가정한 가설4 및 교양체육만족도(신체적)은 전공만족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가정한 가설5는 채택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선행연구[21,22]를 지지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Park, Woo[22]은 부산광역시에 위치한 전문대학 재학생 1,77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교양교육만족도와 전공만족도간의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의 상관관계를 밝혀냈다. 교양교육의 편성 및 강좌구성, 교수학습 및 평가방법, 지원시설 등과 같은 하위요인을 포함하였다. 본 연구

의 결과와 Park, Woo[22]의 연구의 결과가 다른 것은 연구대상의 차이 때문으로 생각할 수 있다. 예를 들면 Kim[31]은 각각 전문대학과 4년제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들을 비교 분석한 결과 대학만족도에서 차이가 있는 것을 밝혀냈다. 타 대학과 비교하여 대학생활에서 가장 큰 부족한 점으로 전문대 재학생은 건물 및 시설을 선택하였으나, 4년제 대학 재학생은 사회적 인식을 선택하였다. 이러한 차이는 대학을 선택하는 동기에서부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대 재학생의 경우 취직전망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으나, 4년제 대학 재학생의 경우 지리적 접근성이 가장 큰 비중을 나타냈다. 이렇듯 전문대학과 4년제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들의 대학생활만족도와 전공만족도에 있어서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사료되며, 이러한 이유로 본 연구의 결과와 Park, Woo[22]의 연구결과에 차이가 나타났다고 생각된다. Park[21]의 연구에 의하면 교양수업의 교육방법과 교과내용에 대한 만족도가 전공만족도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본 연구의 결과는 Park[21]의 연구를 지지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Park[21]의 연구에서는 370명의 미용학과 재학생만을 대상으로 분석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인문계열, 사회과학계열, 자연과학계열, 예·체능계열 모두를 포함했기 때문에 연구결과에 차이가 나타난 것으로 생각된다. 일례로 Han, Han, Cho, Moon[32]의 연구에 따르면 전공별로 교양체육만족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사회계열 학생들이 가장 낮은 만족도를 나타냈으며, 예체능계열 학생들이 가장 높은 만족도를 나타냈다. 즉 Han, Han, Cho, Moon[32]의 연구를 바탕으로 볼 때 연구대상의 전공에 따라 교양만족도에 다소 차이가 나타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연구의 결과 또한 상이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교양체육만족도(심리적)은 대학생활만족도를 매개로 하여 전공만족도에 간접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가정한 가설6 및 교양체육만족도(신체적)은 대학생활만족도를 매개로 하여 전공만족도에 간접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가정한 가설7은 채택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선행연구[9,12-14,19-22]를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Park[9]의 연구에서는 교양체육만족도가 대학생활만족도를 매개로 하여 학업지속의도에도 간접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본 연구의 결과와 Park[9]의 연구 결과를 보면, 교양체육만족도는 대학생활만족도를 매개로 하여 대학운영 및 정책과 관련된 더욱 다양한 요인에 간접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의 결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해보면, 대학에서는 가장 큰 두 가지 교육의 축인 교양교육과 전공교육이 각각 분류된 교육과정이지 아닌 상호보완적이며 상생의 관계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이 두 가지의 요인을 연결시키는 고리가 바로 대학생활만족도이다. 그러므로 교양교육을 대학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연계하여 구성하는 것은 대학의 교육·정책적으로 효과적일 것이다. 예를 들면 교양체육수업의 경우 각 대학별로 활용 가능한 교내 체육시설을 최대한 활용하여 교과목을 선정하고, 수업 시간 이외에도 동일한 체육시설에서 교내 여가스포츠를 참여할 수 있도록 권장 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교양체육과 대학생들이 연계되며, 궁극적으로 전공에 대한 만족도도 함께 높아 질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5. 결론

본 연구는 교양체육만족도, 대학생활만족도, 전공만족도 간의 관계를 규명하기 위하여 구조방정식모형분석을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첫째, 교양체육만족도(심리적·신체적)은 대학생활만족도에 정(+)의 영향을 미친다.

둘째, 대학생활만족도는 전공만족도에 정(+)의 영향을 미친다.

셋째, 교양체육만족도(심리적·신체적)은 전공만족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넷째, 교양체육만족도(심리적·신체적)은 대학생활만족도를 매개로 하여 전공만족도에 간접영향(+)을 미친다.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볼 때 교양체육은 대학생활만족도와 전공만족도 모두에 직간접적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다. 교양체육의 신체활동을 통한 건강증진과 타 전공학생들과의 교류 등 다양한 심리적·신체적 이점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대학이라는 공간 안에서의 전반적인 생활만족도를 높였다고 사료된다. 대학생들은 일과외의 많은 시간을 대학 캠퍼스에서 보내고 있다. 그만큼 대학 내에서의 전공교육뿐만 아니라, 휴식, 사교 등의 다양한 경험이 필요하고 이에 대한 요구를 충족하는 것이 대학의 교육·정책상으로도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대학이라는 교육기관의 가장 핵심적인 교육과정은 바로 전공교육과정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전공교육과정에 대한 만족을 높이는 것은 교양교육이라는 한축과 함께 가야한다는 것을 본 연구의 결과가 제시하고 있

다. 또한 교양교육 자체로는 전공만족도를 높이기 힘들며, 대학생활만족도가 함께 긍정적 영향을 미쳤을 때 비로소 전공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진다는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 및 논의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후속 연구를 위하여 제안한다. 본 연구에서는 설문참여자 중 여학생의 비율이 다소 낮기 때문에, 성별에 따라 요인간의 관계에 차이가 있는지를 고려한 후속연구가 필요하다. 다음으로 교양체육수업에서 실시하는 스포츠의 유형에 따른 차이가 있는지 분석한다면 더욱 폭넓은 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교양체육만족도가 전공만족도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교양체육과 전공만족도간의 관계에 대하여 다양한 후속연구를 실시하고 요인간의 관계를 더욱 명확히 밝혀낼 필요가 있다.

References

- [1] B. M. Park, Educational theory and principles of practice, Seoul: Hakmunsa, 1997.
- [2] S. H. Kim, "Exploration of learning perspective in physical education in liberal arts course: Case study", *Korean Association of Sport Pedagogy*, Vol.11, No.2, pp.105-120. 2004.
- [3] Y. G. Kim, "The project for activation of cultural physical education in university", *Korean Journal of Physical Education*, Vol.37, No.3, pp.499-511, 1998.
- [4] R. W. Baker, B. Siryk, SACQ student adaption to college questionnaire manual, CA: Western Psychology Services, 1989.
- [5] S. H. Kim, Y. S. Kim, "A study of sports culture in the university (1): Cultural physical education", *Korean Journal of Physical Education*, Vol.41, No.1, pp.23-44, 2003.
- [6] D. J. Choi, "The alternative ways for the improvement of college physical education", *Korean Journal of Physical Education*, Vol.34, No.1, pp.1063-1071, 1995.
- [7] A. Lumpkin, Physical education and sport: A contemporary introduction 3th ed., Mosby-Year Book, 1994.
- [8] T. J. Jeon, "A study on relationships between satisfaction of general sports class and self-care performance of health in undergraduate school", *Korean Journal of Physical Education*, Vol.44, No.4, pp.219-228, 2005.
- [9] J. A. Park, "The converged analysis of the effect of physical education class satisfaction on the college life satisfaction and academic persistence",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Vol.10, No.3, pp.257-264.

- DOI: <https://doi.org/10.15207/JKCS.2019.10.3.257>
- [10] A. W. Astin, What matters in college? Four critical years revisited, San Francisco: Jossey-Bass, 1993.
- [11] J. G. Kim, H. G. Seong, C. W. Lee, K. J. Park, "Student life satisfaction: Components and predictors", *Korean Journal of Industrial and Organizational Psychology*, Vol.4, No.1, pp.154-167, 1991.
- [12] T. G. Kim, B. G. Jee, G. H. Lee, "Students' satisfaction with their major and its influence on organizational commitment and behavior intentions to pursue career in the tourism-related fields among tourism-major college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12, No.2, pp. 665-674, 2011.
DOI: <https://doi.org/10.5762/kais.2011.12.2.665>
- [13] H. Park, D. S. Han, "The effects of university life adjustment, career preparation behavior, learning motivation on major satisfaction in students majoring in speech-language therapy", *Journal of Speech-language & Hearing Disorders*, Vol.31, No.3, pp.75-82, 2022.
DOI: <https://doi.org/10.15724/jslhd.2022.31.3.075>
- [14] Y. K. Cho, "Review about factors affecting student adjustment of college among health college students", *Journal of Health and Medical Science*, Vol.8, No.1, pp.49-60, 2019.
- [15] E. Cimsir, "Insight, academic major satisfaction and life satisfaction among college students majoring in education: Implications for career counselling", *Journal of Psychologists and Counsellors in Schools*, Vol.29, No.2, pp.206-218, 2019.
DOI: <https://doi.org/10.1017/jgc.2019.15>
- [16] M. T. Tessema, K. Ready, W. Yu, "Factors affecting college students' satisfaction with major curriculum: Evidence from nine years of data", *International Journal of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 Vol.2, No.2, pp.34-44, 2012.
- [17] M. M. Nauta, "Assessing college students' satisfaction with their academic majors", *Journal of Career Assessment*, Vol.15, No.4, pp.446-462, 2007.
DOI: <https://doi.org/10.1177/1069072707305762>
- [18] M. S. Kang, *The influence of undergraduate students' self-directedness and major satisfaction upon career exploration behavior and mediating effect of employability*, Doctoral dissertation, Hanseo University, Chungnam, Korea, 2015.
- [19] H. N. Lim, "The study on the physical self-concept and satisfaction of university life in the female university students participating in physical education class", *Journal of Korean Physical Education Association for Girls and Women*, Vol.27, No.3, pp.71-82, 2013.
- [20] B. W. Ahn, E. Y. Cho, "The verification of relationship model among self-efficacy, enjoyment factor, flow experience, and university life satisfaction by general physical class participants", *Journal of Wellness*, Vol.10, No.3, pp.97-107, 2015.
- [21] J. S. Park, "Correlation between the Liberal Arts and Major Satisfaction in Beauty Department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osmetology*, Vol.26, No.2, pp.333-339, 2020.
- [22] J. Y. Park, Y. S. Woo, "Analysis of the relationship between major satisfaction, class participation attitude, and liberal arts education satisfaction of junior college students", *The Journal of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 Vol.13, No.5, pp.2851-2866, 2022.
DOI: <https://doi.org/10.22143/hss21.13.5.199>
- [23] R. M. Baron, D. A. Kenny, "The moderator-mediator variable distinction in social psychological research: Conceptual, strategic, and statistical considera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51, No.6, pp.1173, 1986.
DOI: <https://doi.org/10.1037//0022-3514.51.6.1173>
- [24] K. S. Hur, *Structural relationship among Kumdo's participant motivation, club selective determination, flow, satisfaction, and purchase behavior*, Doctoral dissertation, Kookmin University, Seoul, Korea, 2011
- [25] K. B. Kang, *The relationship among leisure participation and college satisfaction leisure satisfaction and life satisfaction of university students*, Doctoral dissertation, Chonnam University, Daejeon, Korea, 1998.
- [26] Y. J. Seo, *The effects of school life satisfaction, social support, major commitment and academic self-efficacy on the learning persistence by university students*, Master's thesis, Konkuk University, Seoul, Korea, 2018.
- [27] J. C. Anderson, D. W. Gerbing,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in practice: A review and recommended two-step approach", *Psychological Bulletin*, Vol.103, No.3, pp.411, 1988.
DOI: <https://doi.org/10.1037//0033-2909.103.3.411>
- [28] S. H. Hong, "The criteria for selecting appropriate fit indices in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nd their rationales",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Vol.19, No.1, pp.161-177, 2000.
- [29] J. Hair, B. Black, B. Babin, R. Anderson, *Multivariate data analysis 7th ed.*, Pearson prentice hall, 2010.
- [30] J. C. Nunnally, I. H. Bernstein, *Psychometric theory 3th ed.*, McGraw-Hill, 1994.
- [31] K. E. Kim, *A comparative study on school choice factors and satisfaction of 4-year university and technical college students*, Master's thesis, Jeonbuk National University, Jeonju, Korea, 2016.
- [32] G. S. Han, D. S. Han, B. J. Cho, T. Y. Moon, "Impact of satisfaction with physical education, general education courses on exercise adherence in university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11, No.9, pp.3380-3389, 2010.
DOI: <https://doi.org/10.5762/KAIS.2010.11.9.3380>

박 재 암(Jae-Ahm Park)

[정회원]



- 2014년 5월 : University of Arkansas (체육학박사)
- 2016년 3월 ~ 현재 : 대구대학교 스포츠레저학과 교수

〈관심분야〉

스포츠행정, 체육행정, 대학체육